

건강과 여가 다같이 중시, '스포츠+' 새 추세로



5.1 절 기간 길림시 송화호휴가구에서 있는 산지 야외 달리기 경기에는 많은 운동애호가자들이 참가해 야외 운동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사진은 5월 1일, 산 아래에서 야외 달리기 출발을 하고 있는 선수들.

스포츠 중심의 여행이 최근 새로운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 각종 대회, 마라톤, 선수권대회 경기를 중심으로 여행 일정을 짜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도시들은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고 호텔 예약, 외식 소비, 문화 탐방 등 분야를 활성화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흐름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바 이는 지난 3~4월 정부가 스포츠, 문화, 관광의 융합을 내수 진작을 위한 전략 방안으로 제시하고 수준 높은 스포츠 프로그램과 특색 있는 행사를 확대하도록 한 요구와 맞먹는다.

지난 5월 2일 복건성 하문시에서 열린 세계연합단체선수권대회 개최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다.

바드민턴을 좋아하는 강소연과 남

편은 5.1절 연휴에 이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신강 우룸치에서 하문까지 3,500킬로미터를 비행기로 날아왔다.

여행 가방에 바드민턴채까지 챙겨온 강소연은 "도착하자마자 현지 동호회에 합류해 세 경기나 뛰었다."고 말했다. 그에게 이번 여행은 스포츠와 여행이 결합된 완벽한 휴식이였다.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는 5.1절 연휴와 맞물려 일반 관광객은 물론 바드민턴 팬들까지 대거 모였다. 특히 현지 상권은 눈에 띄는 호황을 누렸다. 도시 전역의 호텔들은 지난해보다 높은 예약률을 기록했다.

르 매르디앙 하문 마케팅총감 심소연은 "이번 대회로 많은 단체관광객을 유치했다."면서 더 많은 투숙객들

을 끌기 위해 경기장 서플베스, 무료 코트 사용 등 혜택이 포함된 패키지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하문시체육국 부국장 진람은 "방문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챔피언과 함께 걷는 시티 투어", '선수 모교 방문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경기장 바깥에서도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했다.

상해립신회계금융대학 교수 리베공은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과 여가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스포츠와 여행의 결합은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대표적인 해결 방안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경기스포츠 육성, 스포츠의 대중 참여 장려, 스포츠산업 발전을 병행 추진해 체육강국을 건설

한다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도 맞닿아있다.

스포츠산업은 지난 수년간 연간 10%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우리나라의 소비, 혁신, 고용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하문은 40개의 대형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여 26억 원 이상의 경제 효익을 창출했다.

상해 역시 스포츠 중심의 소비를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3월 상해서 열린 포뮬러 원(F1) 중국 경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2만명의 관중이 몰렸다. 해외 방문객은 15%로 그중 60%는 경기를 보기 위해 상해를 찾은 사람들이었다. 전년의 두배에 달하는 수치다.

F1 팬들은 서킷에 머물지 않고 상해의 도심 곳곳을 찾아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며 면세점도 둘러보는 등 다양한 소비 활동을 펼쳤다.

상해 구사체육산업발전(그룹) 회사 회장 양영빈은 "올해 F1 중국 경기 티켓 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 30% 늘었다."고 밝혔다.

상해는 지난해 총 178개의 대형 스포츠 행사를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113억 8,000만원의 직접적 경제 효익을 얻었다. 관광, 외식, 쇼핑 등 관련 소비까지 포함하면 견인 효과는 310억 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스포츠 관광이 치열한 여행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관광지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복건체육대학 교수 추신환은 꾸준한 방문객 유입을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는 관광지 브랜드를 활성화하고 독특하고 확실한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추교수는 마라톤과 같은 스포츠 행사를 통해 도시는 역동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지역 문화를 선보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길림대학 사회사업혁신발전연구원 소속 리베요연구원은 소비자의 행동이 물론 구매에서 의미 있는 경험 추구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을엔 장가계에 가서 단풍 구경하자"

—아이유·박보검이 전한 동화 같은 산수

"래년 가을엔 장가계에 가서 단풍 구경하자." 한국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서 아이유(이지은)와 박보검의 이 평범해보이는 대사는 수많은 시청자의 마음을 울렸고 SNS 핫이슈로 급부상하며 이 세계 자연유산지를 로맨스의 상징으로 재탄생시켰다.

드라마 속 양관식과 애순이 장가계를 사랑의 성지로 삼은 모습은 《아바타》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곳에서 '공중에 떠있는 산'의 영감을 얻었던 순간을 렴상시킨다. 세상 사람들에게 장가계는 언제나 사랑이 꽃피고 상상력이 자유롭게 펼쳐지는 환상적인 땅으로 기억될 것이다.

장가계는 호남성 서북부에 자리한 세계적인 명소다. 이 신비의 땅에서는 아침 안개가 3,000여개의 기이한 봉우리 사이를 흐르고 석양이 사암 봉우리 군락에 황금빛 테두리를 두르며 구름바다가 발아래에서 파도처럼 일렁인다. 방문객들은 그 어느 누구도 환황경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이곳이 과연 인간 세상과 동떨어진 곳인지, 아니면 신선이 머물러 그려낸 살아있는 산수화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다.

장가계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독보적인 투자족의 문화적 매력,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세계 여행객들의 로망이 된 '공중에 떠있는 산'의 비경으로 자리매김했다.

힘을 하는 것이다.

상태 보고 : 북위 30도의 신비한 녹색 기적

신비로운 북위 30도 선상에 자리한 장가계는 완벽하게 보존된 아열대 원시 이차림 생태계의 보고이다. 장가계국가삼림공원은 98%라는 압도적인 삼림률을 자랑하며 '천연 산소공장'으로 불릴 만큼 탁월한 공기 정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곳에는 희귀종인 손수건나무와 은행나무 등이 군락을 이루며 우리나라 특유의 붉은털원숭이와 세계적 희귀종인 중국장수도롱뇽이 서식하고 있다. 금번(金鞭)계곡의 수정처럼 맑은 물이 사암 봉우리 사이를 유유히 흐르는 가운데 계곡 양쪽에는 수백년된 거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서 있어 대기중 음이온 농도가 최대 매립방생치메터당 10만개까지 측정된다. 숲길을 걷는 내내 마치 천지 않을 수 없다. 이곳이 과연 인간 세상과 동떨어진 곳인지, 아니면 신선이 머물러 그려낸 살아있는 산수화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다.

지질학적 서사시 : 3억 8,000만년에 걸친 자연의 조각

장가계의 핵심 매력은 세계적으로 류례없는 석영 사암 봉우리 지형에서 비롯된다. 무릉원(武陵源) 명승지내에 3,000여개의 돌기둥이 마치 하늘을 찌를 듯, 군대의 진영을 이룬 듯, 혹은 다양한 생명체의 모습으로 우뚝 솟아있다.

높이 200~300미터에 달하는 이 기묘한 봉우리들은 3억 8,000만 년이라는 지질학적 시간을 견뎌낸 대자연의 걸작이다. 고대 해양 퇴적층이 지각변동으로 육지로 솟아오른 후 물과 바람의 끊임없는 침식작용을 거쳐 오늘날 '축소된 선경(仙境)이자 확대된 분경(盆景)'이라는 찬사를 받는 독특한 지형을 탄생시켰다.

원가계(袁家界)의 '할렐루야 산'은 영화 《아바타》의 배경 모델로 알려지며 유명세를 탔다. 허공에 떠있는 듯한 이 산의 원형인 남천일주(南天一柱, 후남 '할렐루야산'으로 개명)는 마치 우주에서 떨어진 거대한 수정 기둥처럼 위용을 자랑한다.

양가계(楊家界)의 '봉우리 벽'은 마치 자연이 만든 만리장성처럼 끝없이 펼쳐져있고 천자산의 서해 봉우리 숲은 구름바다 사이로 흐릿하게 나타나 산수화의 립체 버전이라 할 만하다.

이 경이로운 풍경을 감상하는 최고의 방법은 절벽에 설치된 '천문산 유리 잔도'를 걸어보거나 세계에서 가장 긴 천문 케이블카를 타고 운해 속을 가로지르며 '산수화 속을 헤엄치는' 듯한 초현실적 체험을 하는 것이다.

사계절은 장가계에 각기 다른 색깔을 입힌다. 봄에는 산과 들에 꽃이 만개하고 여름에는 푸르름이 가득차오르며 가을에는 숲이 불타는 듯 물들고 겨울에는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다. 가을바람이 은행나무를 노랗게 물들이고 떨어지는 낙엽이 황금빛 카펫을 깔 때면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이 '가을 낙엽 감상'을 로맨스의 상징으로 여기는 이유를 체감하게 된다. 이곳의 모든 가을 잎은 마치 3억년의 세월을 품고 있는 듯 묵직한 시간의 흔적을 전한다.

문화의 활력 : 투자족의 정취와 산수의 화음

이 신비로운 땅은 자연의 성지일 뿐만 아니라 투자족, 묘족 등 소수민족 문화의 요람이기도 한다. 장가계 대협곡 유리 잔도 근처에는 고풍스러운 투자족의 다락집(吊脚楼)이 산비탈에 어우러져 있으며 다락에 사는 민족 의상을 입은 로인들이 담소를 나누곤 한다. 투자족의 파수(摆手) 춤은 경쾌한 리듬을 자랑하며 모고사(茅古斯) 춤은 원시적이면서도 힘찬 매력을 지니고 있다. 매년 투자족의 전통 명절에는 청아한 산간 민요, 신비로운 전통 공연, 활기찬 시장이 소수민족의 생활 지혜를 생생히 보여준다.

현지 음식은 문화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창이다. 투자족의 전통 요리 '삼하과(三下鍋)는 훈제 돼지고기, 두부, 무우를 함께 졸여 깊은 풍미를 자랑한다. 암반에서 채취한 희귀 버섯인 암석버섯과 토종 닭으로 끓인 '암석버섯 닭고기 찜'은 산해진미의 진수를 보여준다. 매콤새콤한 송이버섯볶음에 달콤한 녹두 찹쌀떡을 곁들여 투자족 특유의 막걸리를 한잔 마시면 호남에서 가장 긴 천문 케이블카를 타고 운해 속을 가로지르며 '산수화 속을 헤엄치는' 듯한 초현실적 체험을 할 수 있다.



장가계 천문산

수면건강관리사·안내견조련사... 새로운 취업 루트

우리나라의 신규 직업 리스트에 다국전자상거래 운영 관리자, 드론 운항 관리자, 컴퓨터 보조 설계사, 인테리어 관리자, 커피 가공업자 등 17개가 추가된다.

국가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새로 추가된 이 17개 직업의 42개 직종에는 금 감정평가사, 여행 스탬프 작가, 스마트 창고 운영·유지 보수원, 수면건강 관리자, 안내견 조련사,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스템 테스터 등이 포함된다.

이런 신규 직업과 직종은 변화하는

산업의 새로운 추세와 사회발전 수요를 반영하는 동시에 구직자에게 새로운 취업 루트를 제공한다.

최근 디지털 기술과 고품질 생활로 혁신 기술 응용 방안 및 씨나리오가 앞다투어 출시되고 있으며 다양한 직무의 세대교체도 가속화되고 있다. 새로운 직업군이 국가 차원에서 적시에 규범화되고 인정받는 것은 관련 종사자의 직업 소속감 향상과 로동자의 직업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데 도움이 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직업능력건설

사 관련 책임자는 "이번에 신규 추가된 17개의 새로운 직업 및 42개 직종은 공개 의견을 수렴해 선별되었다."며 "전문가의 심사 논증을 거쳐 중앙 및 국가 기관 관련 부서의 서면 의견을 바탕으로 도출한 결과"라고 소개했다.

새로운 기술의 더욱 광범위한 활용은 기존 직업의 내실을 한층 풍부하고 더욱 세분화시킨다.

AI 전문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부터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돼 다양한 산업에 역량을 부여했다. 자연스레 종사자 규모가 빠

르게 증가하고 직무 수요가 더욱 다양해졌다. '생성형 AI 시스템 응용 기술자' 직업군에는 '생성형 AI 시스템 테스터'가 추가되었고 '애니메이션 제작자' 직업군에는 '생성형 AI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추가되었다.

국가적으로 인정한 직업 종사자는 규정에 따라 국가의 관련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인사부는 기업과 훈련기관 등의 직업교육 및 인재 평가 진행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라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시대극 드라마, 사회의 변천을 비추는 예술의 거울

1980년대에 안방극장에 등장한 시대극은 독특한 역사적 질감으로 우리나라 드라마의 중요한 장르로 자리매김했다. 《금분세가(金粉世家)》에서 《변화(繁花)》와 《대강대하(大江大河)》에 이르기까지 시대극은 단순한 역사적 재현을 넘어 생생한 캐릭터와 풍부한 스토리로 사회적 격변을 보여주는 예술적 매개체로 발전했다.

거창한 서사에서 다원화 서사 예로

초기 시대극은 《상해탄》처럼 재벌가문의 갈등에 집중하며 극적 긴장감을 추구했지만 역사적 사실성이 부족했다. 하지만 리얼리즘에 대한 중시와 함께 현실을 반영한 시대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산해정(山海情)》은 마을 주민들의 분투를 통해 농촌

개혁을 보여주었는가 하면 《남래북왕(南來北往)》은 철도 경찰의 시각으로 교통의 발전을 기록하며 거창한 역사를 평범한 서민들의 일상을 통해 구체화했다. 《인간세상(人間世)》은 주씨네 3대의 운명으로 반세기의 변화를 엮어내고 《골목사람들(小巷人家)》은 이웃간 이야기로 도시화 과정을 투영하며 유형 거울처럼 립체적인 시대의 주파수를 보여주는 등 서사 기법도 단선적 구조에서 다차원적 교차로 진화했다.

캐릭터 설정이 도식화에서 개성화 예로

이전의 시대극 속의 인물들은 도식화되기 십상이었다. 드라마 《갈망》의 여주인공 류해방이 완벽한 현모양처 캐릭터로 묘사된 것이 그 하나의

례이다. 하지만 최근 작품들에는 다양한 캐릭터가 속출하고 있다. 《대강대하》에는 개혁의 선봉장 송운휘, 향진기업가 뤼동보, 개인사업자 양순 등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해 개혁개방 시대의 군상을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캐릭터의 립체적인 이미지도 인성의 복잡성을 여실히 보여주어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내고 있다. 《골목사람들》에 나오는 교사 장초영은 직업적 신념이 강하지만 가정의 갈등은 피해가지 못하는 인물로, 《변화》의 예야저씨는 상인의 계산적인 특징과 년장자의 배려심을 한몸에 지닌 캐릭터로 설정돼 단순히 선악 이분법을 넘어서 작품에 진실성을 더한다.

시대극, 역사와 현재의 대화

시대극은 역사에 대한 재현이자 동

시대 가치관의 투영이기도 하다. 《골목사람들》에서 교육에 대한 묘사는 개혁개방 초기 지식에 대한 갈망을 반영했지만 오늘날 교육 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추구와도 일맥상통하며 《북상(北上)》에서 청년들이 정서적 갈등을 리성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80년대 연애관을 보여주면서도 진밀한 관계에 대한 현대인의 사고를 구현했다. 《나무 아래에 있는 붉은 집들(树下有片红房子)》에 나오는 대사처럼 시대극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화의 교과다.

예술형식과 사회적 사조의 령동 속에서 시대극은 역사 서사의 폭과 깊이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시대의 격변을 목격함과 아울러 현 사회의 정진적 매아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한다.